

### 고려·동영 해운 인천-상해 컨항로 개설

고려해운(사장 전문준)은 동영 해운과 함께 2월4일 인천-상해 구간에 컨테이너정기항로를 개설했다.

양사는 이를 위해 250TEU급 컨테이너선 1척씩을 투입, 주2항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려해운의 '씨니 로벨' 호가 매주 수요일 인천항을 출항하며, 동영해운의 '시안 리안' 호는 매주 토요일 인천을 출발하게 된다. 양사는 또 상호 선박을 100 TEU씩 교환하며 공동운항서비스 형태로 동항로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동서비스에는 인천항의 대한통운 부두가 이용된다.

한편 고려해운은 동항로 개설을 축하하기 위한 취항기념행사를 2월 4일 오전 11시 인천항 대한통운 내항부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대보해운 사무실 동원빌딩으로 이전

대보해운(사장 김창중)은 1월 말 사무소를 서울시 종로구 당주동 동원빌딩 7층으로 이전했다.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는 변동이 없다.

### 동남아해운, 인천항 최대 선사로 부상

동남아해운(회장 양길용)이 지난해 인천항을 통해 최대 물량을 처리한 선사로 떠올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남아해운은 인천항을 통해 10만2,373 TEU을 수송해 컨테이너 수송실적 1위를 차지했다.

줄곧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에서 1위를 지키던 위동한운(유)은 8만9,458TEU를 처리해 여전히 항만기여도가 높은 선사로 기록됐다.

이같은 동남아해운의 실적은 지난 2002년 9만6,900TEU 등 인천항 최대 선사였던 위동한운의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을 컨테이너 정기선사가 처음 역전한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 동영해운 한-일항로 서비스 강화

동영해운(사장 서명천)은 1월 23일 NIIGATA-AKITA-TO-MAKOMAI항에 모선 'PEGA-SUS PARADE' 호(7,979 DWT)를 투입, 서비스를 대폭 강화했다. 동 선박은 매주 목요일 부산항에서 출항한다.

### 범양상선 2월부로 LA사무소 폐쇄

범양상선(사장 장진원)은 2월 1일부로 로스앤젤레스 사무소를 폐쇄하고 중·미주 서안업무를 포틀랜드사무소로 일원화했다.

범양상선에 따르면 본사는 5본부 1원 16부 4실 50팀으로 개편되고, 국내 점소는 2점 1사무소, 해외지점소는 2지점 17사무소로 개편된다.

### 세양선박, 케이프급 선박 1척 인수

세양선박(회장 임병석)은 1월 15일 케이프사이즈급 선박의 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오는 6월20일부터 8월15일 사이에 인수되는 이 선박의 도입 금액은 147억원이다. 세양선박은 선대확장과 대형선박 인수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 및 장기운송계약 화물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이 선박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양선박은 1월26일 공시를 통해 LG CALTEX 정유주식회사와 26.5만톤의 원유수송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계약금액은 55억원이며 계약기간은 2004년 2월17일~2004년 3월31일까지다.

**유코카캐리어스,  
6500대적 PCTC 2척 용선**

유코카캐리어스(사장 칼-요한 빌헬름헤그만)는 지난 1월16일 노르웨이 Wilh. Wilhelmsen ASA가 현대중공업에 발주키로 합의한 6,500대적 자동차트럭은 반선(PCTC) 2척을 대선할 계획

**한진해운,  
6,500TEU급 5척 건조계약**

한진해운(사장 최원표)은 1월 12일 오전 6,500TEU급 컨테이너선 5척 건조를 위해 수출입은행과 프랑스계 크레디리요네 및 현대중공업 등과 금융계약 및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서명식을 가

보안인증서(ISSC)를 획득했다. 이날 한진 콜롬보호는 부산항에서 한국선급의 인증심사를 받은 뒤 파나마 정부로부터 인증서를 취득했다.

**현대상선,  
'퍼시픽석세스' 호 보안증서 획득**

현대상선(사장 노정익) 소속 석탄운반선 "퍼시픽석세스호"(PACIFIC SUCCESS, 25,021톤)가 1월16일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선박보안증서 의무화에 대비한 선박보안 심사에서 퍼시픽석세스호가 2개월에 걸쳐 치뤄진 심사를 통과, 인증서를 받게됐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를 계기로 우리나라 대상선박 380여척에 대한 본격적인 선박보안심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항에서 입항거부 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국제선박보안증서를 차질 없이 발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다. 제1선은 2006년 중반, 제2선은 2007년 전반에 준공될 예정이다, 옵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규 발주에 따라 Wilh. Wilhelmsen ASA의 PCTC 발주잔량은 6척으로 늘어났다.

한편, Wilh. Wilhelmsen ASA은 지난해 12월15일 미츠비시중공업에 옵션을 행사, 6,400대적 PCTC 1척을 추가 발주한 바 있다

졌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총 선가 3억4,800만달러의 건조 대금중 85%를 크레디리요네 은행(15%,프랑스계,주간사 은행)과 수출입은행(70%, 약 2.5억달러)의 협조유자로 조달하게 됐다. 이는 수출입은행의 국내 해운사에 대한 선박금융 규모로는 최대다.

한편,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한진 콜롬보호(파나마선적, 4,024TEU)가 1월13일 국제선박

